

碩士學位論文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타난
홀든의 정신적 방황과 극복과정

指導教授 卞 鐘 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高 賢 珠

2006年 8月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타난 홀든의 정신적 방황과 극복과정

指導教授 卞 鐘 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高賢珠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6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국문초록>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타난
홀든의 정신적 방황과 극복과정

高 賢 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卞 鐘 民

『호밀밭의 파수꾼』은 셸린저의 대표적 장편소설로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주인공 홀든을 통해 물질숭배, 사회의 퇴폐성향, 인간 소외현상 등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그가 정신적 방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사랑의 의미와 인간의 내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을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가 만나는 사회와 사람들의 위선과 허위의식, 사춘기 소년이면서 독특한 감수성을 지닌 홀든의 내면적 특성을 살펴보면서 그가 느끼는 정신적 외로움과 방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그의 방황극복의 과정을 개인적인 각성과 동생이 주는 조건 없는 사랑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방황극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아보았다.

홀든은 거짓된 세상에 염증을 느끼며 자신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외로움을 느끼고 방황한다. 그의 가정, 학교, 동료친구들, 뉴욕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사회현상은 그를 더욱 절망에 침잠하게 하고 그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외로움을 치유해줄 누군가를 찾지만 얻는 것은 사람들의 가식적인 모습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데서 오는 단절감이었다. 그는 이처럼 자신에게 계속 실망을 주는 어른의 세계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순수한 어린이의 세계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그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는 어린이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구원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며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줄 수는 없고 순수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 즉 경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그 어디에도 완벽히 순수한 세계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의 비현실적인 이상추구를 단념하고 현실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모든 방황극복의 과정은 동생 피비의 진정한 애정과 사랑에 의해 가능했다. 피비의 사랑과 홀든 자신의 깨달음은 그를 뉴욕의 거리에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홀든은 순수한 사랑으로 불안정한 현실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는 관용을 배우게 된다. 홀든이 겪는 방황과 외로움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문제들이다. 우리는 미성숙한 16세 청소년이 갈등과 좌절을 통해 성숙한 성인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삶을 이해하는 지혜와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정신적 방황의 원인	
1. 위선적 외부환경	6
2. 청소년기의 심리적 불안	22
III. 방황 극복의 과정	37
IV. 결론	53
Bibliography	56
Abstract	59

I. 서론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은 샐린저(J. D. Salinger)의 자전적 작품으로 1951년에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도 청소년들의 필독서로 평가될만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윈(Gwynn)과 블라트너(Blotner)는 이 작품을 “현대문학 중 젊은이들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전후 작품”¹⁾이라고 격찬하며 젊은 층의 열광적인 환영을 시사한 바 있다. 레이치(D. Leitch)교수는 「샐린저 신화」(*The Salinger Myth*)라는 논문에서 샐린저가 이 소설을 통해 미국문학의 전통사상을 현대적 신화로 창출해 냈다고 극찬하였다.²⁾

이처럼 이 소설이 새로운 고전으로의 위치를 확보하는 가운데 미국의 여러 중등학교에서는 이 소설을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런 학교 중 일부에서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주인공 홀든(Holden)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소설의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모두 피상적인 것일 뿐 결코 이 작품의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소설은 인간성의 순수함과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홀든이라는 사춘기 소년을 통해 당시 사회가 처해 있는 부패상황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다.

이 작품이 발표된 195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되어 냉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쟁 후에 뒤따르는 모든 이념

1) Frederik L. Gwynn and Joseph L. Blotner, *The Fiction of J. D. Salinger*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58), p. 34.

2) David Leitch, "The Salinger Myth," *Twentieth Century* *IXVIII* (November 1960), 428-435.

에 대한 환멸과 인간 구원에 대한 믿음의 상실로 불안감과 허무주의가 짙게 지배하던 시기였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풍부한 물질과 이로 인한 사치와 방탕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물질문명과 황금만능의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술타령과 무분별한 성생활이 난무하고 사회 문화는 퇴폐화 되어갔다. 이는 바로 속물근성, 비인간화, 위선의 탈을 쓴 허상을 몰고 왔다. 퇴폐적인 음악과 영화 및 성문화에 젖어 개척 초기의 미국인의 이상적인 생활태도는 사라지고 물질만능주의를 구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사회·문화적으로 역사상 가장 추락한 시대를 맞이하였다. 즉,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부의 획득이 그들의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인간의 소외와 자아상실, 물질주의 숭배, 비인간화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작품의 주인공 홀든은 이처럼 부패한 사회를 사춘기적 특유의 신랄하고 적나라한 언어를 사용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모든 사회가 '위선'(phony)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세계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맞선다. 겉과 속이 다른 허위의 탈을 쓴 인간들, 허위를 조장하는 예술, 세속화된 종교에 둘러싸여 고민하고 방황하는 줄거리가 미국 또는 1950년대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황금만능주의와 세속주의가 갈수록 팽배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조차 여전히 유효한 사회적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전후세대인 1950년대는 현재보다 더욱 물질숭배 현상이 팽배하고 사람들은 다양한 가면을 바꿔가며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우리가 즐기고 믿는 예술과 종교는 더욱 더 상업화하고 속물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샐린저의 분신이기도 한 홀든은 이러한 속물스러운 사회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예리한 통찰력과 독설로서 기성세대와 주변 환경에 맞선다. 요컨대 샐린저는 이 작품의 주인공을 통해 현대사회의 비인간적 실상을

폭로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에서 순수한 인간이 겪는 고뇌와 갈등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인간상은 진정한 자아의 발견 과정을 통해 사회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홀든은 처음에는 세상이 허위로 가득 차 있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갈등과 방황을 통해 결국 적대시하던 세상을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제적 특성으로 인해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은 주로 현대적 영웅(modern hero) 모형으로서의 홀든 또는 경험적 성숙(initiation) 모형으로서의 홀든의 방황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되었다. 이런 연구는 또한 홀든의 방황의 원인을 구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 결과 경험의 세계, 즉 어른의 세계로 가려는 과정에서 홀든이 순수성을 고집한 데서 방황의 원인을 찾거나 아니면 타락한 주변 환경과 의사소통 불능에 원인이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비평가들은 홀든의 내면에서 원인을 찾아 그가 비정상적으로 심각한 정서불안 장애를 겪는 환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코벳(E. J. Corbett)교수는 홀든이 “엉터리”라는 용어를 44회나 사용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홀든은 엉터리들에 끝없이 대항하는 엉터리 그 자체라고 비판한다.³⁾ 제이콥(R. G. Jacobs)교수도 홀든이 가진 심오한 의문점은 곧 홀든 자신의 결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홀든은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잘못되었다. 비극적으로 잘못 되었다.”⁴⁾라고 비판한다. 제이콥 교수는 홀든의 정신적 질환의 근거를 이 소설의 첫 장 중에 홀든이 “내가 건강을 해쳐 이 곳에서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거나 “나는 내가 본 중에서 가장 나쁜 거짓말쟁이이다”라는

3) Edward P. J. Corbett, "Raise High the Barriers, Censors," *America* IV (January 1961), 441-443.

4) Robert G. Jacobs, "J. D.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Holden Caulfield's Goddam Autobiography," *Iowa English Yearbook* (Fall 1959), 9~14.

구절에서 찾고 있다.⁵⁾ 그리고 그럼왈드(H. A. Grumwald)도 홀튼을 “슬 프게도 다소 꼬인 신경증 환자”(a sad little screwed up neurotic)⁶⁾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홀튼의 방황의 원인을 내부적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홀튼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사회에 대한 반항적 태도 역시 성장과정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홀튼의 방황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고,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 당시대의 부패하고 위선적인 환경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홀튼의 정신적 방황의 원인을 사춘기적 청소년의 자연스런 특성에서 찾아보고 아울러 홀튼이 처한 주변 환경의 탓에서 구명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새로운 접근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와 같은 연구동향 및 배경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홀튼의 방황의 원인을 위선적인 주변 환경과 사춘기적 성장과정의 특성에서 구명해보고, 방황 끝에 주변의 상황을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자아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홀튼의 반항적 시각과 행위를 유발하는 주변의 환경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특히 홀튼이 왜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가 주변 상황과 인물들의 부조리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홀튼의 부적응의 원인이 홀튼 자신의 내면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판단 하에 사춘기적 청소년의 전반적 특성과 홀튼의 말과 행동을 연관시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장에서는 깊은 외로움의 수렁에서 결국 방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

5) J. D. Salinger, *The Catcher in the Rye*, ed.. Sang-yong Park (Seoul: Shinasa, 2001), p. 43. 이하 본문의 인용은 이 Text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만 명시키로 함

6) Henry Anatole Grumwald, ed., *Salinger: A Critical and Personal Portrait* (New York: Giant Cardinal Edition, 1962), p. 8.

유와 현실수용 과정을 살펴보겠다.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물질을 정신보다 우선시하고 많은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현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갈등구조를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춘기적 반항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사회의 낙오자나 문제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선도적 시사점을 찾게 될 것이다.



Ⅱ. 정신적 방황의 원인

1. 위선적 외부환경

홀든은 16세의 소년으로서 학교를 네 번이나 퇴학당하고, 홀로 뉴욕을 방황하며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의 이상향을 찾아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경험한다. 그가 이처럼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당부분 그를 둘러싼 어두운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그의 방황과 네 번의 퇴학은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불안한 가정, 바람직하지 못한 당시대 미국 사회의 분위기에 원인이 있다.

홀든의 정서적 불안 요인으로 가장 먼저 홀든의 불안하고 어두운 가정의 특성을 들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무신경한 부모님과 가정불화에 있듯이 홀든의 가정도 그러하다. 홀든의 부모는 자식의 교육과 정서적 안정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다. 홀든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미국의 중상위층 가정에서 자라났다. 홀든이 자신의 장례식 장면을 상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모님의 친척들이 상당히 많을 것임을 알 수 있고, 할머니가 보내준 용돈으로 뉴욕으로의 여행비를 충당하는 모습에서 부유한 가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홀든의 아버지는 미국의 고문 변호사로서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가정 일에는 소홀하다. 피비가 하는 연극에도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는 등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반영한다. 홀든의 어머니 또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으로서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자식의 일에는 무관심해서 피비(Phoebé)가 홀든의 담배 냄새를 무마시키기 위해 자신이 피웠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부모로서 어린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어머니라는 존재감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것은 이 작품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목소리로만 묘사되는데서 그 상징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홀든이 퇴학 처분을 받고 집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뉴욕에서 지내기로 결정하게 된 원인도 자식의 문제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거나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주지 못한 부모의 탓이 크다 하겠다.

홀든이 학교에서 네 번이나 퇴학을 당할 정도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데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자녀를 도우려는 노력보다는 정신과 병원에만 의뢰한다. 이렇듯 인생의 상담자적 역할과 애정을 쏟아주지 못하는 부모를 둔 홀든은 대신에 자신의 형제자매에 깊은 애정을 갖는다. 특히 두 살 차이 나는 동생 앨리(Allie)는 홀든의 가장 친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이런 홀든에게 앨리의 죽음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가장 커다란 존재였던 앨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홀든을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했고 또래 친구들과 또 다른 애착 관계를 가지게 하는 데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홀든은 굉장히 우울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면, 마치 옆에 앨리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소리를 내어 말한다.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얼마나 침울했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한 일은 앨리와 대화한 것이다. 이걸 내가 우울할 때 종종 하는 버릇이었다. 집에 가서 자전거를 가지고 바비 풀론의 집 앞에서 만나자고 앨리에게 말했다. (162)

엘리로 인해 받은 충격에서 홀든을 벗어나게 해줄만한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의 부재는 정신적 지도자를 찾아 각박한 뉴욕이란 도시에서 홀든 혼자 정신적 방황을 하게 하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다음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한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더 좋은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일률적인 목표를 향하는 획일적인 학교 교육에 원인이 있다. 홀든이 다닌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사회의 높은 평판과 이윤을 추구하려는 어른들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다. 제임스 캐슬 (James Castle)이라는 소외되었지만 신념이 굳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을 만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곳이기도 하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성과 융통성을 억제하고 오로지 통일성만을 강조하는 곳이기도 하다. 말하기 과목에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본론을 이탈하면 모두 “이탈”이라고 외치고 그럴 때마다 점수가 깎이는 수업이 있었다. 그러나 홀든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 본인이 흥미있는 주제를 찾을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오로지 통일성과 간결성만을 주장하는 획일성에 대해 반기를 든다. 그가 마지막으로 다닌 펜시 고등학교 (Pency Prep.)를 왜 낙제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지 동생 피비에게 설명해 주면서, 홀든은 이 학교가 인간적 따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절한 바보들의 소굴이라고 묘사한다.

“이번에 다녔던 학교는 정말 최악이었어. 바보 천치들만 우글거리는 곳이었지. 지저분한 녀석들도 너무 많았어. 넌 아마 그렇게 더러운 녀석들을 본 적이 없을 거다. 이를테면 누군가의 방에 모여서 한참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자. 그때 그 방에 여드름이 잔뜩 나고 지저분한 놈이 들어오려고 하면 방에 들여보내 주질 않는 거야. 그런 녀석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문을 잠가버리는 거지. 또 비밀 친목회라는 게 있는데, 난 겁이 많아서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절해 버릴 수가 없었어. 여드름이 잔뜩 난 로버트 애클리라는 지겨

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녀석도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했다. 몇 번이나 들어오려고 했지만 아무도 넣어주지 않았던 거야. 그저 그놈이 지겹기 짝이 없고, 여드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지. 이런 애긴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 아무튼 정말 악취만 가득했던 학교였어. 그건 사실이야.” (222-223)

홀든에게 학교는 위선으로 가득한 집단이다. 그가 얼마나 학교를 위선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그렸는지는 펜시 고등학교 이전의 학교인 엘크톤 힐즈(Elkton Hills)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그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엘크톤 힐즈의 교장인 하스(Hass) 선생은 교육자이지만 속물 같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일요일이면 학교에 찾아오는 학부모들과 악수를 하는데,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과는 간단한 악수와 억지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하면서 부유한 차림의 학부모들과는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다. 홀든은 외모만으로 인격을 판단하고 물질적인 가치에 속물적 반응을 보이는 교장의 태도를 위선적이라고 말한다. 펜시 고등학교의 써머 교장(Dr. Thurmer) 역시 홀든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그는 퇴학 위기에 처한 홀든을 불러 “인생은 게임이다.”라는 말을 했다.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부를 축적하여 비싼 캐딜락을 사고 싶어 하고, 섹스와 여자 이야기에 열광하며 어른들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모방한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홀든에게 학교는 인간적인 따스함이 결여된 허위의 집단이다.

홀든이 혐오감을 느끼는 펜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스펜서(Spencer) 선생이 있다. 그는 퇴학을 당한 홀든에게 떠나기 전 잠시 들르

라고 하지만 홀튼을 마주하였을 때는 홀튼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퇴학을 당하여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홀튼에게 써머교장과 마찬가지로 “게임으로서의 인생과 그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about Life being a game and all. And how you should play it according to the rules)을 말한다. 인생을 단지 규칙을 따라야 하는 단순한 게임에 비유하는 모습에서 홀튼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시합 같은 소리하고 있네. 시합은 무슨. 만약 잘난 놈들 측에 끼어 있게 된다면 그때는 시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측에 끼게 된다면, 잘난 놈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편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시합이 되겠는가? 아니. 그런 시합은 있을 수 없다. (19)

홀튼은 우수한 선수들이 없는 팀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러한 선수들이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게임은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웨이(Brian Way)는 “홀튼이 생각하는 게임은 경쟁적인 사회를 말한다. 성공에 환호하고 실패에 냉담하며 특히 잘난 사람들이 부패한 사회에서도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청렴하다고 믿고 성공의 이익을 얻는 사회를 말한다.”⁷⁾고 했다.

또한 스펜서 선생은 홀튼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주기 보다는 홀튼의 역사 시험지를 읽어 내려가며 그의 잘못을 들추어내려고만 한다. 홀튼이 적어서 낸 답안지의 편지 내용을 그의 앞에서 읽어주는 행동에 대해 “이건 진짜 치사한 짓이었다.”(56)라고 생각할 만큼 홀튼은 큰 실망과 반감을 느꼈다.

7) Brian Way, "A Tight Three-Movement Structure," in *Studies of J.D. Salinger: Review, Essays, and Critiques of the Catcher in the Rye and Other Fiction*, eds. Mavin Laser and Norman Fruman (New York: The Odyssey Press, 1963), p. 193.

학교에서 발견하게 되는 위선의 인물 중에 또 하나는 펜시 고등학교에 많은 기부금을 내어 그 이름을 딴 건물도 있는 장의사 오센버거(Ossenburger)이다. 그는 학생들 앞에서 연설할 때 물질적 성공만을 강조하고, 자신의 기여사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에만 급급하다. 또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비굴한 모습으로 굽실대는 써머교장의 모습도 분노를 야기한다. 실제로 홀든의 학교에 대한 분노는 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된 물질주의, 외형적 가치만을 쫓는 모습들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웨이크필드(Wakefield)는 “물질이 사람보다 더욱 중요해지며, 결국 그러한 물질적 가치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홀든은 염증을 내고 있다.”⁸⁾고 말한다.

홀든은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에게서도 위선을 발견한다. 홀든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였던 스트라드레이터(Stradlater)와 에클리(Ackley)에 대해 살펴보면, 그들 역시 속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라드레이터는 상대방의 처지와 기분을 전혀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에클리는 누가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저분한 녀석”(a slob)인데 비해 스트라드레이터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은근히 지저분한 녀석”(a secret slob)이다. 홀든은 그가 남들 앞에서는 항상 멋진 모습이지만 실상은 매우 더러운 습관을 가진 인물로 실제 남에게 보이는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매우 지저분한 녀석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그는 매우 이기적이어서 퇴학을 당해 곧 학교를 떠날 홀든에게 데이트를 위해 재킷을 빌려 입고 나가다가 하면, 홀든에게 작문 숙제를 부탁하는 등 타인의 기분과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홀든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숙제를 한 것을 알았을 때 고맙다는 말 대신에 크게 화를 내고 심한 말을 하는 그의

8) Dan Wakefield, "Salinger and the Search for Love," in *Studies in J. D. Salinger: New World Writing*, No. 14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58), p. 68.

태도는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준다.

옆방을 쓰는 애클리는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인물로 거의 항상 기숙사에 홀로 남아있는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가 거의 없어서 아무도 그를 친근하게 “Bob”이나 ”Ack”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다. 또한 얼굴에는 여드름이 덕지덕지 나있고,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쓰고도 제자리에 놓아두는 법이 없을 정도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홀든이 책을 읽는 동안에 애클리가 불빛을 가리자 여러 번 비켜달라고 해도 절대로 한 번에 들어주지 않는 태도는 애클리의 타인에 대한 무신경함과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홀든이 스트라드레이터와 싸움을 하고 잠시 위로를 받기 위해 애클리를 찾아갔을 때도, 그는 홀든이 룸메이트의 침대에서 잠이 들면 안 된다는 말만 할 뿐 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로지 다음날 아침 교회에 나가려면 일찍 자야 한다는 말로 홀든의 방문을 귀찮아하고 둘이 왜 싸웠는지 그 이유만 알고 싶어 할 뿐 정작 홀든의 외로움과 방황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듯 홀든은 지금까지 다녔던 남자학교에서 겪었던 선생들과 동료들의 이기적이고 속물적, 위선적인 모습에 심한 증오심을 느끼게 되고, 샬리 헤이즈(Sally Hayes)에게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료들의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모습을 토로한다.

“언제 한번 남학교에 가봐. 시험 삼아서 말이야. 온통 엉터리 같은 녀석들뿐일 테니. 그 자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오직 나중에 캐딜락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야. 축구팀이 경기에서 지면 온갖 욕설이나 해대고, 온종일 여자나 술, 섹스 같은 이야기만 지껄여대. 더럽기 짝이 없는 온갖 파벌을 만들어, 그놈들끼리 몽치다니지 않나. 농구팀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들끼리 몽치지. 똑똑하다는 것들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브리지 하는 놈들은 또 저희끼리 모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영리하다

면……“ (210)

홀튼은 켈리 헤이즈와 만나서 학교에 대해 위와 같이 표현하면서, 학교 친구들조차 이해관계를 따지고, 순수를 추구하기 보다는 좋은 차를 사기 위해 공부하고, 여자, 술, 섹스 등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홀튼이 학교를 뛰쳐나와 들어간 성인세계 뉴욕에 대해 알아보자. 뉴욕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많은 위선으로 넘쳐 있다. 홀튼이 뉴욕으로 나와 처음으로 찾아든 곳은 에드몬트(Edmont) 호텔이다. 이곳에서 그가 바라다보는 사회의 첫 장면은 충격 그 자체이다. 그는 호텔 창 너머의 반대편 호텔에서 벌어지는 변태 성욕자들의 낯선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즉, 그의 방 창문 건너편에서 아주 잘 생긴 한 남자가 옷 가방에서 여자 옷을 꺼내어 입고 룸에서 여자 같이 걸어 다니며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옆방에서는 두 남녀가 서로 입으로 물 튀기기 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이에 홀튼은 적지 않은 놀라움과 우울함을 느낀다.

머리가 하얗게 센 점잖게 생긴 남자가 침대 위에 옷가방을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거기서 여자 옷을 꺼내더니, 그걸 입는 것이었다. 정말 여자 옷이었다. 실크 스타킹, 하이힐, 브래지어, 거기에 끈이 잔뜩 달린 코르셋까지 말이다. …… 그 남자 방 위층에서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입에서 물을 내뿜고 있었다. 어찌면 물이 아니라, 하이볼이었던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유리잔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난 하나도 재미가 없었다. 이 호텔에는 온통 지저분한 변태들뿐이었다. 어찌면 이곳에서 정상적인 인간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지도 몰랐다. (87~88)

홀튼은 변태장면을 보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에드몬트 호텔의

나이트 클럽으로 간다. 거기서 시애틀에서 온 세 명의 여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단지 그 먼 거리를 오로지 유명한 영화배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온 사람들이다. 게리 쿠퍼(Gary Cooper)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다는 홀튼의 거짓말에 흥분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라디오 시티 음악당(Radio City Music Hall)에서 하는 쇼를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그녀들의 말에 홀튼은 실망한다.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와서는 음악당의 첫 쇼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홀튼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홀튼은 형 디비(D.B.)가 헐리우드로 가기 전에 형과 자주 갔던 어니(Ernie)의 나이트클럽으로 향하게 된다. 어니는 단지 청중들에게 보이기 위해 피아노 앞에 큰 거울을 놓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주하는 속물 연주자로, 상대방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청중들 앞에서 온갖 기교를 다 부리며 연주하고 연주 후에는 가식에 찬 절을 하며 겸손한 척 한다.

어쨌든 어니가 연주를 끝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열광하며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다. 어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로 꾸민 것이 분명한 정중한 답례를 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피아니스트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기라도 되는 듯이. 그건 정말 사기였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어니는 정말 속물이라는 점이다. (116)

그리고 순수한 영혼의 소리와 진실한 모습이 없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음악에 대해서 광분하여 박수갈채를 보내는 청중들도 홀튼에게는 위선자들이다. 홀튼은 이들이 무조건 아무 때나 박수를 쳐대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만약 자기가 피아노를 연주한다면, 차라리 벽장 안에서 연주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는 상황이 더 좋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홀든은 크리스마스 쇼의 오케스트라에서 작은 북을 치는 단원을 가장 훌륭한 연주자로 생각한다. 홀든은 여덟 살 때부터 그런 단원을 줄곧 보아왔으며, 앨리와 함께 그가 잘 보이는 자리로 옮길 정도로 그를 좋아했다. 비록 그 단원이 한 곡에서 북을 치는 기회가 단 두 번 밖에 없지만, 북을 치는 차례가 되면 심각한 표정으로 아주 멋지게 북을 쳤다. 홀든은 위선이 가득한 사회에서 작은 일에도 진지할 수 있는 그를 좋아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북을 잘 치는 사람이었다. 음악 한 곡에서 북을 칠 일이란 단지 두 번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은 북을 치지 않고 있을 때도,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는 법이 없었다. 그러다가 북을 치는 순간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멋지고, 훌륭하게 북을 두드리 는 것이다. (185)



현대 물질 사회의 대부분이 그의 눈에는 위선적으로 비쳐진다. 예술 또한 그의 눈에는 위선적으로 비쳐진다. 특히 그는 “내가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화다”라고 할 만큼, 영화를 무척이나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영화가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허위를 조장하고 예민한 감정을 둔화시키고 있으므로 일종의 허상의 본보기라고 비판한다. 또한 일요일이면 정장을 하고 브로드웨이로 영화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는 더 우울해진다. 그들은 영화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하고 좌석을 구하기 위해 무서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도 한다. 소비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은 영화 관람을 통해 그들의 백일몽을 꿈꾸는 것이다. 또한 그의 형 디비가 작가 생활을 할리우드로 옮겨 시나리오 작가로 전향했을 때도 홀든은 형의 전향이 물질에 현혹되어 금전만을 추구하는 외도작가라고 비

난한다. 이는 형이 진실성을 추구하지 않고 허상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값싼 헐리우드 영화계 작가로 전락했음을 말한다. 이를 두고 홀튼은 “매춘부”(prostitute)라고 까지 매도한다.

아울러, 영화와 마찬가지로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도 위선적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 곧바로 대사를 받아 재빨리 말하는데 이것은 실생활과 비슷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지나치게 실생활과 똑같다는 데 문제가 있다. 로렌스 올리비에(Laurence Oliver) 같은 배우는 자기가 좋은 배우라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실망시킨다.

연극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영화만큼 끔찍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달리 언급할 정도도 못 된다. 우선 나는 배우들이 싫다. 배우들은 절대로 진짜 사람들처럼 연기하지 않는다. 나를 대로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할 테지만 말이다. 훌륭한 배우들 중에는 간혹 정말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연극이 재미있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배우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훌륭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된다. 예를 들면 로렌스 올리비에가 그렇다. 그가 분했던 「햄릿」을 본 적이 있다. (158)

홀튼은 인간미를 상실한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그들의 연기가 어니의 피아노 연주와 비슷하며, 아무리 훌륭한 것을 연주하거나 연기하여도 이것을 뽐낼 정도로 의식한다면, 그 자체의 훌륭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유명 인사라는 걸 너무 의식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 연기를 잘하기는 했지만, 너무 잘했다고 하는 편이 맞는 설명일 것이다. 한쪽이 뭐라고 대사를 중얼거리면, 상대방이 재빨리 대사를 받아 응얼거린다. …… 두 사람의 연기는 마치 빌리지에서의 어니의 피아노 연주와 비슷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나치

게 무언가를 잘한다면, 자신이 조심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과
시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은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170)

홀든은 좋은 책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감동하는 책은, 다 읽고 나서 그 작가와 정신적인 교류를 나누기 위해 전
화를 걸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책이
다. 그는 시종일관 의미심장하고 도덕적인 주제만을 다루는 책을 좋아하
지 않고 “적어도 가끔은 재미있는”(at least funny once in a while) 책을
좋아한다. 그래서 홀든은 모엄(Somerset Maugham)의 『인간의 굴레』
와 헤밍웨이(Hemingway)의 『무기여 잘 있거라』를 싫어하며 라드너
(Ring Lardner),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위대한 게츠비』,
또는 토마스 하디(Thomas Hardy)의 『귀향』을 좋아한다. 무엇보다도
형 디비가 발간했던 단편집 중에서, 자신의 돈을 주고 산 금붕어를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꼬마의 이야기를 담은 「비밀금붕
어」(The Secret Goldfish)를 가장 좋아했다. 그러나 형이 할리우드 극작
가로 전향했을 때는, 매춘부로부터 매도하는 등 큰 실망감과 혐오감을 느
끼게 된다.

위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가장 경건하고 순수한 정신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은 종교이다. 그러나 홀든의 눈에 비친 종교는 속세에 지친 사람들
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속화됨으로써
타락의 한 상징으로 비춰진다.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홀든의 시각은 그
종교가 내포하고 있는 교리상의 모순보다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표
리부동한 모습에 연유되어 있다. 우선, 홀든은 설교단에서 있는 목사들
의 가식에 찬 음성을 참을 수 없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의 목소리
를 버리고 가식에 찬 목소리로 바꾸어 설교함으로써 회중들의 마음을 사

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 목사들에 대해서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다. 내가 다녔던 학교마다 목사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틀에 박힌 거룩한 목소리를 만들어 설교를 하곤 하는 것이다. 난 그게 싫었다. 왜 좀더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들의 이야기가 순 거짓말처럼 들리는데도 말이다. (137)

그들의 설교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지 않고 틀에 박힌 듯 거룩한 음성만을 낼 뿐이다. 그래서 홀튼은 그들의 이야기가 거짓처럼 느껴진다. 또한 홀튼은 성스러워야 할 크리스마스의 행렬 쇼가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칼 루스(Carl Luce)와의 약속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자, 홀튼은 라디오 시티의 영화관에 가서 쇼를 보게 된다. 홀튼은 해마다 열리는 크리스마스 쇼에서 손에 십자가를 든 천사로 분장한 배우들이 무대를 가득 메우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단지 배우들이 기계적인 연기만 할 뿐 여기에 종교적인 성스러움이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말 장관이었다. 거룩하면서 아름다운 광경인 건 사실이었지만, 십자가를 들고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라는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거룩하다거나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다. 공연이 끝나 무대를 내려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바로 담배나 피워댈 것이므로. (184)

샬리는 1년 전에 홀튼과 함께 쇼를 보면서 무대의 의상이나 장식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했지만, 홀튼은 이런 호화찬란한 의상들은 종교가 추

구하는 검소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해야 하는 성스러운 종교 행사가 쾌락주의로 흐르거나 속물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은 현대의 물질주의적 사회가 엮어내는 아이러니의 한 양상이다.

또한 홀든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자선행위에 대해서도 위선이라고 정의한다. 자선을 연기하는 듯한 홀든의 숙모의 자선행위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남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인위적인 행동에 더 가깝다.

우리 숙모는 자선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었다. 적십자나 워니 하면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었는데, 옷차림도 활동만큼이나 요란스러웠다. 그런 자선과 관련된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언제나 차려입고는 입술에 립스틱을 바른다 어쩐다 하면서 치장을 하는 것이다. 자선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검은 옷만 입고, 립스틱도 바르지 말아야 한다면, 숙모는 그런 일을 할 것인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켈리의 엄마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154)

하지만 홀든의 눈에 위와 같이 위선적이고 가식에 찬 종교의 모습만 비춰지는 것은 아니다. 홀든은 샌드위치 바에서 모금을 위해 밀짚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토스트와 커피만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두 수녀들의 소박한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는다. 사람들을 쳐다볼 때 예쁘고 상냥한 미소를 짓고, 소박한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수녀들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설교단 위에 서있는 목사와는 대조를 이룬다. 이렇듯 홀든은 켈리에게 학교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여러 위선적인 모습들을 혐오하고 있음을 토로한다.

“그래. 난 싫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싫어해. 그뿐만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그래. 뉴욕에서 사는 것도 싫고, 택시니, 매디슨 가의 버스들, 뒷문으로 내리라고 고함이나 질러대는 운전기사들, 런트 부부를 천사라고 그러는 멍청이에게 소개되는 일이나, 밖에 잠깐 나가려고 해도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일이나, 브룩스에 가서만 바지를 맞추는 놈들, 언제나 사람들은……” (175~176)

홀든은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학교와 뉴욕에 머무르는 것을 참을 수 없어하고 더욱 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또한 그는 학교와 뉴욕에 팽배한 구성원들의 위선적인 모습들과 물질주의에 물들어 순수함을 상실하고 있는 예술과 종교의 저속한 모습들을 혐오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무신경한 가정, 학교, 예술,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위선적인 요소들은 곧 홀든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정신적인 방황과 외로움을 겪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정서적 방황에 일차적 원인이 되는 가정은 홀든의 문제에도 여지없이 적용되어 홀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신경함이 작품 속에 드러났다. 또한 지식만을 강조하고 인격이나 사람들과의 조화를 등한시하는 경쟁적인 학교는 홀든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곳에서 만난 속물적인 여러 선생님들이나 동료친구들은 상처입고 방황하는 홀든의 심정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기적인 요구만을 할 뿐 어느 누구도 깊은 대화의 장을 함께 형성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뉴욕에서 발견하게 되는 위선적이고 변태적인 행태들은 홀든을 더욱 깊은 충격으로 몰아넣는다. 아직은 순진한 소년 홀든의 눈에 비친 뉴욕은 놀라운 현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느끼는 위선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속물적인 어른들은 방황하는 홀든을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하고, 예술과 종교마저도 속물적인 세상에 녹아들어 홀든의 이상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어디를 가도 역겨움으로 가득한 홀든의 주변 상황은 그를 더욱

슬프게 하고 어느 곳에도 의지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하며 그를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이게 한다.



2. 청소년기의 심리적 불안

앞서 살펴보았듯 홀든의 주변 상황은 그의 이상향과는 거리가 먼 속물적이고 세속화된 환경이었다. 이상향과 현실의 괴리감은 그를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어느 곳에도 편하게 기대할 수 없게 하기에 충분했다. 홀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선적 환경이 그의 불안의 일차적 원인이라면,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청소년기를 거치는 홀든의 내면적 특성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같은 환경에서도 홀든이 더욱 더 깊은 절망감으로 위선적 환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예민한 시기에 놓인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누구나가 청소년 시기에 사회와 주변 환경에 대한 반항심을 키워보았듯이 그의 불안과 적대감은 성장통으로서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홀든은 펜시 고등학교에서 퇴학통보를 받은 뒤 크리스마스 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3일간을 홀로 뉴욕 시내를 방랑한다. 그리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신요양소에서 그 스스로 “다만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이곳에서 요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직전에 일어난 미치광이 같은 내 신변 이야기를 하려는 참이다.”(10)라고 말하며 이 글을 쓰고 있다. 이처럼 홀든이 자신의 이야기를 미치광이 같다고 묘사한다거나 이 글을 서술하는 장소가 정신요양소라는 것만 보아도 그가 안정되고 평탄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홀든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서 부적응의 고통을 겪으며 아웃사이더로서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는 자신의 문제보다는 그가 마주하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위선과 부조리를 더 크게 바라보며 자신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상세계를 꿈꾸며 도피의 환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 부적응의 원

인은 홀든 개인의 성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홀든은 말보다는 글로 표현을 더 잘하며 활동적이라기보다는 조용하고 신중한 내성적인 성격이다. 홀든은 주변 인물들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친구들과 모임이나 클럽활동 등에 열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한다. 홀든은 주변 사람들 또는 환경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특성에 대해 신랄하리만큼 잘 파악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나야말로 평생을 찾아도 만나볼 수 없는 지독한 거짓말쟁이일 것이다. 정말 끔찍한 놈이다.”(29)라고 표현하듯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또한 홀든은 주변 사람들과 현상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그는 학교 친구인 애클리와 스트라드레이터와 같은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태도에 어떻게 반응해 주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가 “나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스트라드레이터 같은 놈들도 약간은 걱정이라는 걸 해 봐야 한다.”(44)라고 말하는 것은 친구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홀든의 장래를 걱정하며 이야기 해주는 스펜서선생에게 “이건 한순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시기를 거치지 않습니까?”(28)라고 물음으로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있고, 삶의 작은 나무들 보다는 인생이라는 커다란 숲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겸비했다고 보인다. 또한 홀든은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아는 아이이다. 후튼 고등학교(Whooton) 시절에 만난 아서 차일드(Arthur Child)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홀든은 예수는 결코 유다를 지옥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사막에서 몇 십 년간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지냈던 미치광이를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로 보아 홀든만의

독특한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홀튼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주체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주관이 뚜렷하며 타인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이 내린 결론대로 밀고 나가는 고집스러움이 있다. 펜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기 전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자숙하라는 경고를 듣지만 이를 무시한다거나 다른 과목은 모두 낙제했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만은 낙제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관적이며 고집스러운 성향을 잘 나타낸다. 요컨대 그는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주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아이이다.

홀튼은 이와 같은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그가 처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타협하지 못하고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런데 홀튼의 성격적 특성은 그 자신만의 개인적 성향일 수도 있지만 상당부분 사춘기에 처한 청소년기 소년들의 보편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홀튼이 겪는 부적응의 고통과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시켜 논의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청소년 시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성적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정신적 변화를 일으킨다. 또한 신체적으로 충분히 자라서 성인의 크기와 모습으로 변모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부모에게 자기주장과 반항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⁹⁾ 홀튼은 키가 6피트가 넘고 머리에 흰머리도 많은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홀튼 자신이 독립적인 성인처럼 학교와 집을 떠나 자신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서부로 가서 삶을 꾸려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데에는 그의 성숙한 외모의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홀튼은 뉴욕으로 가는

9) 구자경 외, 『청소년 문제론』,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1998), p. 7.

기차 안에서 학교 동료 어니(Ernie)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어른과 같은 말투로 어니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한다.

“엄밀히 따지면 안 되죠. 하지만 이렇게 키가 큰데다가 흰 머리칼도 많거든요.” 나는 옆으로 얼굴을 돌려 흰 머리칼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정말 감탄하는 것이었다. “같이 가지죠. 괜찮지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았다.
(82)

뉴욕의 클럽이나 술집에서도 홀튼은 위와 같은 어른스러운 외모를 내세워 성인문화를 경험하려 한다. 그러나 뉴욕의 성인들은 비록 홀튼이 어른 흉내를 내지만 그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다. 홀튼이 뉴욕의 한 호텔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찾아간 술집 라벤더 룸에서 그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술 주문을 거부당한다. 호텔에서 창녀 썬니(Sunny)와 함께 사기를 쳤던 모리스(Maurice)도 홀튼이 중산층의 아이인 것을 알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밤새 호텔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른처럼 보이는 홀튼의 성숙한 외모와 관련하여 박상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홀튼의 반백의 두발은 한 다리는 사춘기에 그리고 또 한 다리는 성인세계에 걸치고 있는 이미지리를 은유하고 있다. 즉 홀튼이 결백한 사춘기의 세계와 진입하기 두려워하면서도 피하지 못하는 성인세계 사이에 걸쳐서 망설이고 있는 심리적 구조가 저변에 깔려 있다.¹⁰⁾

이처럼 홀튼은 성인의 모습과 흡사하지만, 아직 성인의 세계에 당도하지 못한 어린이와 성인의 중간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10) 박상용, 『오늘의 미국문학』, (서울: 한국영어영문학회, 1983), p. 245.

청소년은 인지발달상 비판적 사고, 미래 지향적 사고, 이상의 추구가 가능해져서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성세대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인물들의 결점을 혐오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기존의 사회구조를 부정적,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동시에 높은 이상 세계를 꿈꾸어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를 보여주는 시기이다.¹¹⁾

홀든 역시 자신의 생각과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자아의식이 강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대부분의 행동과 반응은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위선적인 기성세대와 그들을 그대로 닮아 가는 동료들을 보며 혐오와 구토 증세를 느낀다. 이러한 홀든에 대해 야들리(Yardley)는 “이 소설은 제임스 딘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사춘기적 냉소와 반항을 소설로서 표현하였다.”¹²⁾고 평가하고 있다.

홀든이 다녔던 엘크톤 힐스 학교의 하스교장, 또 펜시 고등학교의 써머 교장, 학교 동료였던 애클리나 스트라드레이터처럼 친구가 퇴학을 당하든 말든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과 장래 캐딜락을 사기 위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거룩한 척 하는 가식적인 교회의 성직자들, 기교만을 부리며 연주하는 클럽 피아니스트와 무대 위의 배우들, 창녀 써니와 함께 홀든과 같은 청소년에게 사기를 치는 모리스, 주변의 똑똑하고 그럴 듯 해 보이는 남자들이 모두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외모에만 신경 쓰는 샬리, 자신의 소유물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고 얼마나 좋은 물건을 가졌는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등 물질에 노예가 된 사람들, 자신의 출신을 과시하기 위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지성을 자랑하

11) 한상철 외,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1997), p. 171.

12) Jonathan Yardley, "J. D. Salinger's Holden Caulfield, Aging Gracelessly", *Washington Post*. (October 19, 2004), 101.

며 여자이야기나 하는 아이비 리그의 남학생 등, 홀튼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바라본다. 그러한 것들은 홀튼에게 위선과 가식, 교만함으로 가득한 사치스럽고 속물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위커바(Wicker Bar)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곳이 지나칠 정도로 세련된 곳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온갖 가식적인 인간들이 즐겨 드나들기 시작했다. 정말 멍청이 같은 노래였지만, 이곳에 있던 속물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곤 했다.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환호성을 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질 것 같다. (189~190)

홀튼의 반항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가 아끼는 모자를 들 수 있다. 뉴욕으로 펜싱경기를 하러 갔다가 펜싱 장비를 지하철에 모두 두고 내려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날 1달러를 주고 산 빨간 사냥모자는 홀튼의 불안정한 심리와 반항의식을 보여준다. 실용적일 때도 있지만 긴 챙과 귀 가리개가 달려있는 빨간 사냥모자는 홀튼만의 독특한 취향을 나타내준다. 가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모자 쓰는 것을 자제하기도 하지만, 홀튼은 그 모자를 무척 좋아한다. 모자에 대해 홀튼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사냥모자의 챙을 앞쪽으로 돌려 눈이 가려지게끔 깊숙이 눌러썼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우리 고향에서는 사슴 사냥할 때 그런 모자들을 쓰더군. 그건 사슴 사냥모자야.”하고 그가 말했다. “말도 안돼.” 나는 모자를 벗어두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다른 순간 나는 한쪽 눈을 감고 과녁을 겨누는 시늉을 하며 “이건 사람 사냥모자야. 이걸 쓰고 나는 사람들을 사냥한다 이 말이야.” 하고 말했다. (69)

홀튼은 모자챙이 뒤로 가게 쓰는 것을 좋아하며 ‘사슴 사냥하는 모자’라는 애클리의 말을 부정하고 ‘사람 사냥모자’라고 말한다. 부조리한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를 향해 반항적으로 모자를 거꾸로 쓴 채 총을 겨누고 있는 홀튼의 모습이 연상된다. 한편 홀튼은 스트라드레이터의 작문 숙제를 마지못해 해 줄 때, 또 그에게 흠뻘 두들겨 맞은 후 사냥 모자를 거꾸로 쓴다. 이는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집중하거나 불안하고 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함이기도 하다. 즉 빨간 사냥모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홀튼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보호막인 동시에 부조리한 곳 어디든 총을 겨누게 할 수 있는 사냥꾼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인간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그 과정에서 애정의 욕구와 의존욕구를 갈구하고 동시에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애정욕구와 의존욕구를 동료나 선배, 선생님에게 얻으려고 시도한다.¹³⁾ 설리반(Sullivan)은 청소년 초기에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고 하면서 이러한 욕구는 10대들이 친한 친구를 찾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청소년들이 친한 친구를 찾지 못하면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할 것이며 낮은 자기 존중감으로 이러한 고통은 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¹⁴⁾


홀튼은 주변에 가족 이외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없다. 그는 소설 전반에 걸쳐 깊은 외로움을 계속해서 표현한다. 그는 “나는 갑자기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100)거나 또는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얼마나 침울했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162)라고 자신의 외로운 감정을 토로한다. 이처럼 홀튼은 펜싱 고등학교를 뛰쳐나와 뉴욕에서 방황하면서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린다. 아

13) 구자경 외, p. 13.

14) 한상철 외, p. 207.

마도 펜시에서 뿐 아니라 세번의 퇴학을 당했던 이전의 학교에서도 홀든은 외로웠을 것이다. 룸메이트나 주변의 친구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며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홀든은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혼란의 시기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만한 선후배나 또래가 없기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괴로워한다. 이에 대해 홀든은 자신의 지적인 수준에서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또래 누구에게도 자신을 열어 보이지 않는다.

홀든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른들의 독단적인 사고방식이나 홀든을 어린아이 취급하여 훈계조의 말을 하려는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절대로 진리는 아니다. 어른들이란 자기네들 말이 절대 진리라고 한다. 나는 그들의 말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긴 나잇값을 하라는 말을 들으면 하품만 나오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때로 내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때도 있다. 이걸 정말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걸 눈치 채지 못한다. 그들이 뭔들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있냐만은. (53)

홀든은 학교를 나오기 전날 밤 브로사드(Mal Brossard)와 애클리워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 나갈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하얗게 내린 눈을 멍친 홀든은 너무나 하얗고 깨끗하게 쌓여있는 차 위나 수도전 위에 눈몽치를 던지지 못하고 결국 손에 든 채 버스에 올라탄다. 눈몽치를 결코 아무에게도 던지지 않겠다는 홀든의 말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전사는 눈몽치를 가지고 버스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신의 말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 어른들에 대해 홀든은 “어른들이란 절대로 남을 신용하려 들지 않는다.”(86)라고 말한다.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대단히 예민하여 하잘 것 없는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도 쉽게 흥분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 상태는 감정의 양면성으로 잘 나타나는데, 극과 극을 달리는 자기 갈등적이고 모순된 감정을 보임으로써 혼란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극단적인 기분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이성적, 객관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 된다.¹⁵⁾

대부분의 청소년들에 비해 홀든은 특히 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이다. 그의 글 속에서 발견되는 홀든의 행동은 “불현듯(All of a sudden)”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많다. 갑자기 무슨 생각과 감정이 들고, 무슨 행동을 하고 싶어져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홀든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소설 속에서 내키는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예컨대 홀든은 스트라드레이터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기숙사 밖에서 기다리는 제인과 직접 인사를 할 기회가 있었고 뉴욕에서도 여러 번 제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려 하였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기하고 만다. 즉 그는 “하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그런 일에는 그럴 만한 기분부터 생겨나야 하는 법이다.”(183)라고 말하며 제인과 대면할 기회를 계속 놓쳐버린다.

그가 펜시를 뛰쳐나온 직접적인 원인 또한 극도의 우울한 감정적 동요에 의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계획한 것이었다. 또한 이후의 뉴욕에서의 여정 또한 즉흥적인 행동이 많다. 뉴욕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학교 동료 어니(Ernie)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자신의 이름을 루돌프 슈미트(Rudolf Schmidt)라고 거짓말 한 것, 충동적으로 모리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창녀

15) 한상철 외, p. 27.

씨니를 호텔 방으로 불러들인 것 등은 의도하지 않은 순간적 판단의 행동이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앞서는 청소년 시기의 홀튼은 이처럼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 후회하기도 한다. 그가 많은 애정을 주었던 친동생 엘리가 죽은 날 밤 차고에서 자고 있던 홀튼은 소식을 접한 후 차고에 있던 모든 자동차의 유리를 맨 주먹으로 깨부순 사건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동생이 죽은 날 밤 나는 차고 안에서 잤는데 주먹으로 창문을 모조리 때려 부숴던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다. 그저 그러고 싶었을 뿐이다. 그해 여름에 산 왜건의 유리까지 박살내려 했는데 이미 내 손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엘리를 모르니까 내 심정을 이해 못 할 거다. (89)

또한 샬리를 사랑하지 않지만 만난 순간만큼은 갑자기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도 하고 결혼해서 함께 서부로 떠나 살자고 제안을 한다. 그러나 샬리가 이 제안을 거절하자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고, 왜 그랬는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는다.

어쨌서 내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메사추세츠나 버몬트 같은 곳에 같이 가자고 한 것 말이다. 설사 같이 가겠다고 해도 나는 그녀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와 같이 가더라도 그녀와는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녀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그게 진심이었던다는 점이다. 그건 정말 문제다. 정말 말 나는 미친놈이라니까. (204)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Just for the hell of it.)"는 표현 또한 홀튼의 글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는 행동의 어리석

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그 말을 하고 있었을 때는 진심이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두 감정의 혼란스러움을 노출시킨다. 만약 셸리가 자신의 제안에 응하여 함께 가자고 했을지라도 본인은 가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된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홀든은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고 또한 모순된 감정과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큰 키와 반백발의 조숙한 외모를 가진 홀든은 성인흉내를 내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누릴 수 있는 문화로부터 거절당하는 외적 모순을 경험한다. 이와 더불어 홀든 안에는 내적 모순이 존재한다. 홀든은 허위로 가득한 세상에 깊은 적개심을 품고 있지만, 5달러를 요구하는 창녀 쓰니를 돌려보낸 후 다시 찾아온 모리스의 협박에 내심 무서운 감정을 갖는다. 겉으로는 당당하게 어른 흉내를 내는 그이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미숙하고 모순된 심리를 볼 수 있다.

또한 홀든은 사실을 왜곡하며 관객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위선적인 영화를 매우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영화를 열 번이나 보는 경우도 있으며,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종종 본인이 영화주인공이 된 듯한 상상을 하기도 한다. 호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온갖 변태행위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소망하면서도 변태행위를 하는 여자가 미인이라고도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창문 너머의 일을 궁금해 하기도 한다. 또한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인사말을 건네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나이트 클럽에서 릴리안(Lillian)과 같이 온 해군장교를 만났을 때, 홀든 역시 “멋집니다(It's grand)." 또는 "만나서 반갑습니다(Glad to meet you)."와 같은 형식적인 말을 건네며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좀 더 비싸고 좋은 자동차에 열광하는 모습을 혐오하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더욱 인간적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꿈꾸는 세계, 즉 서부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동차 주유원으로 돈을 모으겠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그의 심리적 모순을 반영한다. 이렇듯 홀튼은 지독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예민한 감수성의 소유자이자,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그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며 수많은 모순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형성하는 시기로서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과 회의에 빠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기이다. 자아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한 청소년은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자신의 존재가치와 현실 속에서의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자각한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은 인생관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혼란함을 느끼며 매사에 충동적이고 동요되기 쉽다.¹⁶⁾

홀튼 역시 자아정체성 형성 시기에서 진정한 자아의 발견을 위한 고민과 회의, 그리고 방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다. 아직 자아정체성이 확고하게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홀튼은 진정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발견하지 못하여 혼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처음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3일간의 뉴욕방황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과 소망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의 부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그러한 아이들이 우선으로 이루어진 사회로 통하는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 그가 찾은 소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희망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에서 비롯된 자신만의 이상으로 끝나고 만

16) 한상철 외, pp. 27-28.

다.

홀든의 혼란스러운 심리적 상황은 호수에 사는 ‘오리’와 연관을 맺는다. 펜스에서 퇴학소식을 들은 후 스펜서 선생을 찾아갔을 때, 겨울날씨처럼 앙상한 마음을 안고 간 홀든에게 스펜서 선생의 말과 행동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그 집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만큼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가 퇴학을 당한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라는 선생의 질문에 이런 저런 잡담을 늘어놓으면서도 동시에 센트럴 파크의 호수에 사는 오리 떼를 생각하게 된다. 겨울이 와서 센트럴 파크의 호수가 다 얼어버리면 그 곳에 살고 있던 오리들은 어디로 갈까 하는 궁금증은 그 후로도 3일간 뉴욕의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홀든이 겨울날 오리들의 행방을 궁금해 하는 이유는 추운 겨울이 오고 호수의 물이 퐁퐁 얼어버린 환경에서 오갈 곳 없는 오리들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센트럴 파크의 오리들에 대해 오하라(J. D. O'Hara)는 다음과 같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오리들은 위협에 처한 순수함을 상징한다. 얼음, 겨울, 죽음은 순수함을 위협하는 것들이고, 트럭 운전사는 일시적인 구원자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리의 상황이자 홀든의 상황이기도 하다. 소설 전반을 통해 홀든은 겨울날과 같은 그의 인생에서 구원을 찾고 있으며, 오리는 그를 대신하는 상징물이다.¹⁷⁾

오리들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차가운 겨울과 퐁퐁 언 호수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순수함이 사라져버린 사회와 환경을 의미한다. 그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는 호수에서 갈 곳을 잃은 오리들이 자신들을 데려가 줄 트

17) J. D. O'Hara, "No Catcher in the Rye," *Modern Fiction Studies* 8 (1963), 370.

럭 운전사를 기다리는 것처럼, 겨울처럼 냉혹한 인생을 살며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홀든 역시 그에게 안정된 정체감을 가져다 줄 정신적 안식처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다.

토요일 밤 어니 클럽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탄 홀든은 기사에게 센트럴 파크의 호수에 사는 오리의 행방을 물어본다. 겨울이 되면 오리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택시기사는 오리 뿐 아니라 물고기들도 그 자리 그대로에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럴까요? 그러면 뭘 먹죠? 얼음 속에 퐁퐁 얼어 있으면 먹이를 찾아 헤엄칠 수도 없을 텐데요.” “몸뚱이가 있지 않소? 젊은이는 지금 돌아나 보군. 그들은 몸뚱이로 영양분이니 뭐니 닥치는 대로 취한단 말이오. 얼음 속에 있는 해초나 오물에서 말이오. 그것들은 항상 땀구멍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지요. 이제 내 말을 알아들었소?”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만일 젊은이가 물고기라면 자연의 어머니가 돌봐 줄 것 아니오? 그렇지 않소? 겨울이라고 해서 물고기가 죄다 얼어 죽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142)

오리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물고기에 대해 답하는 것은 질문의 핵심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홀든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자연은 물고기들이 얼어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물고기들은 항상 땀구멍을 활짝 열어놓고 얼음 안에 있는 해초나 오물들에서 영양분 같은 것들을 닥치는 대로 취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자 자연이 그들을 그렇게 돌본다는 것이다. 홀든을 물고기에 비유하며 홀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연의 어머니가 돌볼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사의 마지막 말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인생의 겨울에서 홀든 역시 취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보이는 황량한 사회 속에 있지만 그의 숨구멍을 활짝 열어놓는다면 살아가고 성장하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하지 못한 산모에게서도 태아는 탯줄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는 것과 같이, 열악하지만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Ⅲ. 방황 극복의 과정

거짓과 위선, 도덕적·정신적 타락, 무지와 교만, 무관심과 비정함, 그리고 섹스의 문란 등으로 질서를 잃어가는 사회에서 홀튼은 성인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세상에 무난하게 적응하는 것도 아니고, 숭고한 이상을 실천할 의지를 지니고 있지도 않다. 지독한 외로움이 그를 엄습해 오고, ‘추방자’(outcast)로서 느끼는 소외감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비참하다. 현실 어디를 둘러봐도 죽음 속으로 빠져드는 그를 붙들어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뉴욕시를 떠돌아다니는 동안 점점 지쳐가고,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힘을 상실한다. 그는 번잡한 도시에서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낀다. 이런 절망 속에서 홀튼이 상상하는 자신의 모습은 항상 상처 입은 피해자로서 자기 변민과 감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러한 피해의식은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어 극단적으로 죽음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한다. 현실 어디를 둘러봐도 죽음 속으로 가라앉는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뉴욕을 돌아다니는 동안 이처럼 점점 지쳐가고,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잃는다. 게다가 공원으로 가는 동안 동생 피비에게 주려고 산 빈즈(Shirley Beans)의 레코드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는데 이것은 그가 간직해 온 이상이 순식간에 부서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인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 홀튼을 더욱 어두운 심연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 술집에서 만난 웨이터, 댄서, 영화배우, 사기꾼, 창녀 등 모두가 위선자 아니면 변태성욕자들이었다. 도시생활의 이면은 남녀 간의 무질서한 성욕이 난무하는 무대요, 변태와 위선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다. 한 때 믿음직스러웠던 안톨

리니(Antolini) 선생에게도, 그리고 벽 위의 낙서에서도 위선은 언제나 따라 다녔다. 이러한 사회에 뛰어난 홀튼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엉터리 세상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순수의 세계를 찾아 헤맨다.

홀튼은 허위에 찬 현대 도시인의 왜곡된 삶에 저항하여 순수를 갈망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진리를 성취하려는 염원을 보이고 있다. 홀튼은 허위를 'phony'라고 표현하는 것과 대비시켜 이 사회에서 최상의 가치에 'nice'라는 형용사를 붙이는데 이 말은 순수성이라는 단어로 집약될 수 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알아차리는 너무나 똑똑하고 다정한 여동생 피비, “거만한 자식”(conceited boy)이라고 말한 것을 취소하라는 아이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한 캐슬, 형 디비가 발간했던 단편집 중에서 자신의 돈을 주고 산 금봉어를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꼬마, 크리스마스 쇼의 오케스트라에서 지루한 표정을 짓지 않고 차례가 되면 심각한 표정으로 아주 멋지게 작은 북을 치는 소년, 손에 땀이 나든 안 나든 걱정할 필요 없이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제인, 어떤 사람에게도 화를 내 본 적이 없는 죽은 남동생 엘리, 가식 없는 희생정신을 실천하면서 초라한 식사를 하는 두 수녀 등은 홀튼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를 지탱해주던 힘이였다.

타락한 현실에 대한 실망이 크면 클수록, 이처럼 아름다운 이들에 대한 홀튼의 걱정과 애정도 깊어진다. 홀튼은 자기 여동생 피비, 죽은 남동생 엘리, 체스놀이를 하며 왕을 뒷줄에 늘어놓고 사용하지 않던 제인의 순수함과 혹은 두 수녀처럼 때 묻지 않은 겸허함에 가치를 두고 있다. 제이콥스(Robert G. Jacobs)는 이런 홀튼을 말세의 피터팬(Peter Pan)에 비유하며 성인세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피터팬처럼 홀튼 역시 어린이

들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⁸⁾을 설명하고 있다. 방황의 과정 속에서도 순수를 지키고 싶은 홀든의 소망은 다음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이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고 있지 않았다. 그 아이가 정말 재미있었다.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인도와 차도 사이에 놓은 연석 바로 옆을 걷고 있었다. 아이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그 꼬마도 똑바로만 걸어가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걸어가는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꼬마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를 들어보았다. 「호밀밭에 들어오는 사람을 잡는다면」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 꼬마는 그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차들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들리고 있었다. 꼬마의 부모는 아이에게 전혀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그 애는 그저 연석 옆에 붙어 차도를 걸어가며, 「호밀밭에 들어오는 사람을 잡는다면」을 부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다. (156)

뉴욕이라는 미궁 속을 헤매는 동안,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지각하게 된다. 홀든에게 어린이는 아직 물질 문명 사회에 물들지 않은 상태로, 어른들의 허위와 대조되는 가장 순수한 인물이다.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다.”(156)라는 그의 독백은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터리들이 우글거리는 학교를 거부하며 스스로 시작한 뉴욕 여행에서

18) Robert G. Jacobs, "J. D.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Holden Caulfield's 'Goddam Autobiography'," *Iowa English Yearbook* (1959), 12.

홀든이 발견한 것은 허위만이 난무하는 성인세계의 현실이었다. 냉담한 현실은 그를 깊은 외로움의 수렁으로 몰아넣었고, 그는 죽음과도 같은 외로움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며 이 여행을 계속할 힘을 잃어간다. 험난했던 여정으로 지쳐버린 영혼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동생 피비 뿐이었다. 그래서 피비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그 애는 나를 무척 좋아하지”(229)라고 생각하며 피비가 있는 집을 향한다.

홀든이 피비를 만나러 가는 것은 이 소설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홀든은 피비를 만나서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피비는 오빠가 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오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싫어하잖아”(244)라고 말하며 그의 태도를 꼬집는다. 그녀가 오빠의 잘못을 지적하여 충고하는 것은 홀든이 어른에 대해 경멸하고 증오했던 것과 병렬관계를 이루고 있다. 홀든이 이상을 추구하고 어린이의 순수함을 지켜주고자 했던 소망도 어린 피비가 불 때는 형식적이었으며 어른들의 모습과 똑같이 느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물질주의로 병든 뉴욕시를 헤매어 왔던 그는 어린이들의 거짓 없는 순수함이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참사랑을 세상에 전해줄 어린이의 순수함은 동시에 악과 무관심의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 무관심한 부모들과 떨어진 채 차가 다니는 위험한 도로를 걷던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회상하게 된 홀든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며, 그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피비에게 그의지를 밝힌다.

어쨌거나 나는 넓은 호밀밭 같은 데서 조그만 어린애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항상 눈앞에 그려본단 말야. 몇 천 명의 아이들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곤 나밖에 아무도 없어. 나는 아득한 낭떠러지 옆에 서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누구든지 낭떠러지에

서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붙잡아주는 거지. 애들이란 달릴 때는 저희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런 때 내가 어딘가에서 나타나 그 애를 붙잡아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면 돼. 이를테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인 줄은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은 그것밖에 없어. 바보 같은 짓인 줄은 알고 있지만 말야. (248)

잡아주고 지켜주는 행위의 주체는 홀든이고, 당하는 수동적 객체는 어린아이들이다. 그는 파수꾼으로서 어린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 호밀밭의 어딘가에는 벼랑이 있으므로 위험에 처해있는 어린이를 반드시 구출해야 한다는 그의 의지가 표현된다. 여기서 호밀밭은 우리의 가정이거나 혹은 사회를 상징하고 갑작스런 물질문명, 부패, 위선 등의 벼랑이 출현함으로써 아이들이 가치관의 혼란과 위험의 순간에 처하게 됨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썩(P.I. Seng)은 "홀든이 꿈꾸는 세상에서의 최고의 시민은 보도 바깥쪽을 따라 걸으며 'If a body catch a body'를 부르는 어린 소년들일 것이다."¹⁹⁾라고 설명한다.

‘호밀밭의 파수꾼’으로서의 소망은 ‘Holden Caulfield’라는 이름에도 상징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그 이름이 갖는 상징성과 관련하여 제이콥스는 ‘Holden’이라는 이름은 파수꾼(catcher)이 수행하는 동작을 연상시킨다. …’Caul’은 태아가 태어날 때 종종 머리에 쓰고 있는 양막의 일부분으로서 행운이 따른다는 미신과 관련이 깊고, 혹은 탄생 그 자체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field’는 호밀밭이다.”²⁰⁾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호밀밭의 파수꾼’으로서의 홀든의 운명과 사명은 자신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에서 좌절을 예감하게 된다. 이러한 좌절의 불씨

19) Peter J. Seng, "The Fallen Idol: The Immature World of Holden Caulfield." *College English* XXII (1961), 206.

20) Jacobs, p. 12.

는 피비와 나누는 그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번스(Robert Burns)의 시는 'If a body catch a body'가 아니고 'If a body meet a body'이며, 피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홀튼은 모르고 있다. 박상용은 이것에 대해 “원시는 ‘meet’로 되어있는 시어를 홀튼이 자의로 ‘catch’로 바꾸어 부른 것이다.”²¹⁾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난다.”를 “사람을 붙잡는다.”로 잘못 알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또한 이를 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다.

홀튼과 피비의 대화 가운데서 홀튼이 잘못 알고 있는 시는 번스의 “호밀밭으로 걸어오면서”(Coming Through the Rye)²²⁾이다. 이 시는 구원이나 억눌린 순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호밀밭에서의 유희과 성적인 희롱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마도 그의 시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젊은 남녀 간의 성적인 접촉을 의미하고 있음²³⁾을 추측할 수 있다. 홀튼은 무의식중에 “만난다”는 말을 “붙잡는다”로 오인, 왜곡하고 이를 억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요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의 여정 가운데서 성에 대한 거부와 호기심이라는 양가적인 반응을 보이며 끊임없이 갈등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무의

21) 박상용, "J. D. Salinger의 *The Catcher in the Rye*," 『영어영문학연구』 제20집 (1981), 59.

22) Robert Burns, "Coming Through the Rye," in *The Poetical Works of Robert Burns*, ed. J. Logie Rober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3), pp. 483-484.

Coming through the rye, poor body, / Coming through the rye,
She draiglet a' her petticoatie, / Coming through the Rye.

Gin(If) a body meet a body / Coming through the rye;
Gin a body kiss a body, / Need a body cry?
Gin a body meet a body / Coming through the glen;
Gin a body kiss a body, / Need the world ken(know)?

Jenny's a' wat(wet), poor body; / Jenny's seldom dry;
She draiglet a' her petticoatie, / Coming through the rye.

23) Peter Shaw, "Love and Death in *The Catcher in the Rye*," in *New Essays on The Catcher in the Rye*, ed. Jack Salzm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104.

식적인 경향은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적박한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들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지나친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인간을 구할 수 없다. 악으로 빠지는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신의 몫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다른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과 마주보며 세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세상은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그러나 ‘악’을 제거하고 ‘선’의 세상을 건설하려는 홀든의 소망은 시를 잘못 들음으로서 오해하게 된 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홀든의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다. 뉴욕 여행으로 지친 홀든은 깊은 소외감으로 침잠하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피비에게서 안식을 찾고자 부모님 몰래 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집을 나갈 때는 “어떤 의미에서 날 붙잡아 주길 바랄 정도였다.”(256)라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그렇다면, ‘파수꾼’(catcher)이 되겠다는 의지는 결국 절망의 늪에서 자신을 건져줄 파수꾼에 대한 바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끝을 알 수 없는 공허감에서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소망하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홀든이 예전에 다니던 학교의 영어 선생이던 안톨리니를 찾아가는데, 이 선생님에 대한 그의 애착은 소설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스펜서 선생에 대한 혐오와는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난 안톨리니 선생을 이제까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젊어서 나이도 형인 디비보다 그다지 많지 않았다. 같이 농담을 주고받아도, 상대방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였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임스 캐슬, 창문에서 떨어진 그 아이를 안아 올린 것도 그 선생이었다. 그 아이의 맥을 짚어보고는 자기 옷을 벗어, 그 아이를 덮어준 뒤 양호실까지 안고 간 것이다. 옷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231)

홀튼은 안톨리니에게서라면 ‘과수꾼’의 이미지를 본받음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수행할 수 있고,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홀튼의 눈에 비친 안톨리니의 모습은 자신을 이끌어 주기에 가장 적합한 구원자의 이미지다. 부패한 현실에서 방황하던 홀튼은 안톨리니에게 큰 기대를 걸며 그의 집을 찾아간다. 안톨리니는 홀튼이 방문했을 때, 그의 고통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이며 홀튼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준다.

지금 네 모습은 무서운 타락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구나...이러다 보면 네가 서른 살쯤 되었을 때는, 어느 술집에 앉아 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학에서 축구를 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중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끼리 애긴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정도밖에는 교육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아니면 그냥 회사에 다니면서 옆에 앉은 속기사한테 서류나 집어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 (246)

현재 홀튼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안톨리니의 충고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고 그의 집을 방문한 것은 그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자신의 갈 길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런 그에게 안톨리니 선생은 교육적인 충고를 한다.

네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구나...지금 네가 떨어지고 있는 타락은, 일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특별한 것처럼 보인다. 그건 정말 무서운 거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이 타락할 때는 본인이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끝도 없이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네가 그런 경우에 속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찾을 수 없다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고는 단념하지. 실제로 찾으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냥 단념해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247-248)

안톨리니의 충고에 의하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실의에 빠진 채 타락의 길로 빠져든다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 노력이 부족한 염세적 운명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안톨리니는 정신분석학자 스테켈(Whlhelm Stekel)의 “미성숙한 인간의 특징이 어떤 이유를 위해 고귀하게 죽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동일한 상황에서 묵묵히 살아가기를 원한다.”(248)라는 경구를 홀든에게 적어주는 성의를 보인다. 순교자나 구원자의 삶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표현한 이 경구를 들려주면서 안톨리니는 홀든에게 현실에 적응해 나갈 것을 권한다.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가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학교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남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이다. 남들과의 교섭을 통해서 상대방의 경험을 받아들여서 생활의 표본으로 삼을 때 비로소 나의 정신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길 바라는 안톨리니의 충고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홀든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홀든이 안톨리니에게 기대했던 것은 구원이지만 다른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충고는 아니었다. 안톨리니에게서 구원자의 이미지를 원

했던 홀든은 자신의 기대가 빗나갔음을 알고 실망한다. 안톨리니가 주는 실망스러움은 다음의 사건에서 더욱 더 크게 홀든의 마음속에 각인된다.

갑자기 난 눈을 떴다.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잠에서 깨버리고 말았다. 뭔가 귀두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람 손 같기도 했다. 그 순간 난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랐다. 그런데 내 귀두를 만지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안톨리니 선생의 손이었다. 선생은 어둠 속에서 긴 의자 옆에서 바닥에 앉은 채로 내 귀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난 정말 천 피트는 필쩍 뛰어오를 뻔 했다. (253)

이 사건을 통해 그 동안 홀든이 생각했던 이상, 자신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었던 안톨리니가 변태적 이미지로 비쳐지게 된다. 안톨리니 역시 다른 어른들처럼 지저분한 어른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홀든이 스스로 진실되고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는 진통을 경험하는 순간에 안톨리니의 변태적인 행동은 그로 하여금 어른들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안톨리니가 보여준 모습은 홀든이 뉴욕시를 배회하는 동안 목격했던 변태성욕자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이 사건으로 안톨리니에게 기대했던 구원자의 환영은 홀든의 머리 속에서 산산조각 나 버린다. 마침내 홀든은 깊은 상처만을 받은 채 이곳을 떠나게 된다.

홀든은 무서운 나락의 길로 차단고 있는 자신의 절망적 상태 하에서, 낭떠러지로 빠지는 어린이들을 붙잡는 과수꾼이 되겠다는 자신의 의지는 모순임을 깨닫는다. 구원의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서 구원자의 모습을 찾는 그의 노력에서도 역시 우리는 모순을 발견한다. 따라서 이상을 위해 죽을 용기가 없었던 홀든이 선택한 길은 이상이 결여된 삶이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했으며, 위선적인 어른들의 세계

와의 싸움에서 희생당한 젊은이로 간주한다.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낀 그는 마침내 세상을 등지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 서부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서부는 매우 아름답고 햇볕이 풍부하게 내리쬐는 이상적인 곳이니 홀튼은 그곳을 찾아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 자리를 구해 귀먹은 병어리처럼 살아가기를 결심한다.

서부는 아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햇볕도 따뜻하겠지. 게다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일 자리를 구하는 것이다...그저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곳에 가는 걸로 족했다. 그곳에서는 귀머거리에 병어리 행세를 하며 살 참이었다. 그러면 누구하고도 쓸데없고, 바보같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말이다. (260-261)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인연을 끊고 귀먹은 병어리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홀튼의 결단적 구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숲 속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탈출하는 것을 상상한다. 거기에서 요리를 하며 자기처럼 귀먹은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다. 그 아이를 세상에서 살도록 기르지 않고 숨겨서 기를 것이며,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을 가르치겠다는 상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는 무척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 이런 숲 속의 오두막집과 호밀밭은 분명 오염되지 않은 사랑의 장소와 도피처임에 틀림없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이런 장소를 발견할 수 없다. 이를테면 홀튼은 이상을 포기한 상황에서 인간들을 등진 상태이다. 홀튼의 서부행 결심은 이상세계를 찾아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왔던 이상추구를 거부하는 표현이다.

홀튼은 앞서 “난 오히려 말을 택할 거야. 적어도 말은 인간답거든.”이라 하면서 차에 미쳐 있는 사람들을 비난했었다. 그러나 지금 서부에서

얻으려는 직업은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일이다. 하필 주유소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는 인간을 구원하는 파수꾼의 꿈이 실현 불가능함을 자각하고 그가 경멸했던 대상이지만 삶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굽히려는 겸허한 삶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제 홀든은 삶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요 없는 귀먹은 병어리(deaf-mute)의 소극적 형태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부로 떠나기 전, 홀든은 피비에게 작별인사를 하려고 박물관에서 동생을 기다리다가, 미라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두 소년을 만나게 된다. 유령이 나올 듯 무시무시한 지하 통로를 지나 미라가 있는 무덤에 도착하자, 미라를 찾던 두 소년은 기겁을 하고 도망간다. 이상하게도 무덤 속에 혼자 남게 된 홀든은 무한한 평화와 안정을 느낀다. 그러나 벽에 쓰인 음란한 낙서를 보는 순간 그의 평화는 깨어진다. 그는 이 낙서를 보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할까 고민에 빠진다. 홀든은 피비와 다른 아이들이 이 낙서를 왜곡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런 낙서를 한 녀석을 현장에서 붙잡아 흠뻘 두들겨 주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러나 용기가 없음에 그는 또다시 우울해하며, 비록 선생으로부터 자신이 썼다는 누명을 쓰지나 않을까 겁이 났지만 결국 낙서를 지워버린다. 그리고 홀든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피비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다른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전과 같은 낙서를 또 발견한다. 그러나 이번 것은 칼로 새겨져 있어서 지울 수도 없었다. 홀든은 이런 낙서는 백 만년이 걸려도 반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올라올 때와는 다른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그곳 벽에도 <이런 씹할>이라는 낙서가 있었다. 다시 손으로 문질러 지워버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칼 같은 걸로 새겨져 있어서 지울 수가 없었다. 하긴 쓸데없는 일이기도 했다. 백만 년을 걸려서 다 지우고 다

닌다고 하더라도 전 지구상에 쓰여 있는 <이런 씹할>이라는 낙서의 절반도 지우지 못할 테니까. 그걸 전부 지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말이다. (265)

홀튼은 학교에서 발견했던 지저분한 낙서를 박물관에 있는 미이라의 무덤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빨간 크레용 같은 것으로 쓰여 있는 "Fuck you"라는 낙서는 몇 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미라처럼 영원히 존재한다. 홀튼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는 근원적으로 완벽히 평화로운 세상은 발견할 수 없음을 안다. 왜냐하면 원래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는다.

정말 문제였다. 어디서도 아늑하고 평화로운 장소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 말이다. 그런 곳은 없는 것이다.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일단 가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어떤 자식이 바로 코밑에다 <이런 씹할>이라고 써놓고는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가 죽어 무덤에 묻히고, 비석 같은 것에 <홀튼 콜필드>라는 이름을 새겨 넣으면,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쓰여진 아래로 누군가가 <이런 씹할>이라고 몰래 써놓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사실, 난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도 있다. (267-268)

홀튼은 영원히 지워버릴 수도 없는 저속한 낙서는 자신이 죽어 편안히 잠들어 있는 묘지의 비석에서도 발견될지 모른다고 단언한다. 이처럼 사회는 한 개인이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 변치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홀튼은 점차 인식해 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홀튼이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은 이후 홀튼의 정신적 깨달음과 인식의 변화에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라실을 나온 후에 난 화장실을 가야만 했다. 설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건 심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화장실을 나오다가 문 앞에서 쓰러지고 만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난 운이 좋은 편이었다. 바닥에 쓰러질 때 옆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그리고 정말 웃기는 건 그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는 것이다. 쓰러지는 바람에 팔이 좀 아팠지만, 이제 어지럽지는 않았다.
(268)

홀튼의 의식상실은 외적 세계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지나치게 반항적인 자세는 지양되고 자신이 지금껏 소유해 왔던 가치기준을 상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정신적인 깨달음을 통해 성년으로 입문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홀튼이 가지고 있던 ‘과수꾼’과 ‘귀먹은 병어리’로서 살아가려는 환상은 잠시 유보가 된다. 이러한 그의 내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동인 중의 하나가 피비라는 존재와 그녀의 역할에 있다.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난 피비로 인해 홀튼은 세상의 참모습을 깨닫는다. 같이 가게 해 달라고 조르는 피비에게 그는 학교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다. 홀튼은 연극과 아놀드(Benedict Arnold)역을 피비에게 상기시키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라고 설득하고 있다. 그는 피비가 연극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피비로 인해 서부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지켜온 신념도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라면 버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부질없는 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인간인 것이다.

또한 홀튼은 피비를 통해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동생에게서 보게 된 반항적 행동은 위태롭다. 그리고 여태껏 거부해왔던 성인들의 충고를 흉내 내어 피비에게 들려준다. 여기서 홀튼

은 자신이 보여준 부적응의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느끼고 역시 자신을 걱정해온 어른들을 이해하게 된다. 인간을 사회로 불러들이는 것은 참사랑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런 사회를 지탱시키고 있는 것 또한 인간의 참 사랑인 것이다.

세상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다. “홀튼은 피비의 순수하고도 인간적인 사랑에 정화되어, 마침내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심미안의 개안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²⁴⁾라는 진술은 홀튼이 현실로 회귀하고 있는 원인을 인간적인 사랑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제 홀튼은 성숙하고 새로운 눈으로 피비와 다른 어린이들이 회전목마를 타는 것을 지켜본다. 그러나 회전목마 위에서 황금 링(gold ring)을 잡으려는 피비와 다른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없고, 보호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피비가 목마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며, 불현듯 난 행복감을 느꼈으므로. 너무 행복해서 큰소리로 마구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피비가 파란 코트를 입고 회전목마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정말이다. 누구한테라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278)

순수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아름다우며 호소력을 지닌다. 지금의 어린 피비도 언젠가는 청소년이 되고,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을 것이며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홀튼은 지금 피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경험이라는 악에 물들어 변해버린 운명을 지닌 순수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 순수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인간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24) 이옥, 「Thoreau와 Salinger의 문학에 반영된 동양사상」, 『충남대학교 논문집』 제4권 (1983), 15.

홀든의 “큰소리로 마구 외치고 싶었다.”는 고백을 통하여 깨달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상 모두로부터 떠나려 했던 홀든은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리움을 접한다. 그의 그리움의 대상에는 그에게 상처를 입힌 위선적인 세상의 친구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한 걸 후회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이 보고 싶다는 것 뿐. 이를테면, 스트라드레이터나 애클리 같은 녀석들까지도. 모리스 자식도 그렇다. 정말 웃긴 일이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 (279)

지금까지 홀든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증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애정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반항과 증오와 부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세상을 이해하는 각성이며, 동시에 박애적인 사랑의 출발이며,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구도자의 마음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샐린저의 『호밀밭 파수꾼』은 유머와 솔직함이 배어있는 16세 소년의 언어와 순수를 간직하고자 하는 시각으로 전쟁 직후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만연해 있는 미국 사회를 날카롭게 조명하고 있다. 물질이 안겨다 준 편리와 육체적 쾌락은 정신적 가치 추구의 부재, 인간성의 상실의 결과를 가져왔다. 50년대 미국사회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우리 사회와 많이 닮아 있음을 생각할 때, 작품을 통한 샐린저의 목소리는 현재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 물질화, 기계화되고 있는 부조리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홀든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상실해 가는 인간의 순수성과 참사랑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이제 막 세상과 사회의 실체를 마주하기 시작한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주인공 홀든은 순수함을 추구하며 청소년 특유의 반항 어린 시선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허위를 꼬집는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그가 현대 젊은이의 대변자나 아메리카 아담의 이미지를 지닌 순수이야기의 주인공이 기 보다는 개인적인 특수한 경험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뇌하는 소년이라고 평가한다. 즉 성인세계를 물질만능주의와 속물근성이 만연한 혼탁한 사회로 보고 그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강렬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독특한 정신적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는 소년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의 방황 원인이 사회라는 외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비정상적인 정신적 불안상태에만 있는 것도 아닌 그의 내부와 외부상황 모두에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홀든은 모순이 많은 10대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력과 시각으로 사회를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아이의 세계에서 성인의 세계로 가는 골목

에서 겪는 다양한 혼란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홀든은 진정한 자아정체감을 찾기 위한 부단한 역할 혼미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제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어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충동적인 발언과 모순적인 행동을 종종 후회하기도 한다. 이렇듯, 자신의 내적인 불안정 이외에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없던 홀든은 깊은 절망감으로 뉴욕을 배회하지만, 그곳에서는 더욱 더 큰 위선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의 절망감과 외로움은 더욱 극에 다다른다.

그러나 많은 위선들 가운데에서도 홀든이 지키고 싶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도 있다. 홀든은 동생 피비에 대한 애정, 죽은 동생 엘리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굽히지 않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죽은 캐슬, 스낵바에서 만난 수녀들이나 노래를 부르며 가는 어린이, 심지어 공원의 오리에게까지 애정을 느낀다. 이것들은 홀든이 추구하고 싶은 순수함과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 중에서도 동생 피비에 의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게 된다. 동생과 대화하면서 그는 인간애를 인식하고 속물과 화해를 하며 이를 받아들인다. 모순으로 가득차고 미성숙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모습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감싸며 수호천사 역할을 하겠다는 피비의 천진난만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홀든의 마음이 열리고 세상을 어둡게만 바라보던 시야도 긍정적으로 변모한다. 그녀의 따스한 관심과 애정에 홀든의 외로움이 달래어지고, 그녀의 순수함과 그에서 비롯된 행동은 홀든으로 하여금 왜곡된 이상에서 깨어나 세상에서 누구도 보호자,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동등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사냥꾼의 모자를 쓰고 마주하는 삶의 모든 것에 충을 겨누고 있던 홀든은 비로소 세상과 화해하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행복함을 느낄 수 있

는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또한 피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할 줄 아는 이타적인 마음과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비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봄으로써 현실을 수용하게 되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성장은 그의 방황에 대한 완전한 치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요양원에서 의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면 잘 할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그것은 바보 같은 질문으로 직접 겪어보지 않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는 홀든의 생각에서 잘 드러난다. 굴곡이 많은 인생에서 미래를 확실히 예측하고 장담할 수는 없다. 3일간의 방황은 홀든에게 커다란 정신적 성숙의 기회를 가져다준 의미 있는 사건이었지만, 성숙을 향해 가는 생의 순례에 있어 또 한걸음의 성장을 위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모두 한 후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스트라드레이터, 애클리, 심지어 모리스까지 그리워진다고 말한 홀든의 태도 변화에서 우리는 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환경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더불어 함께 사는 여유와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여섯 살 시절의 뉴욕 거리에서 방황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인간의 소외와 방황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며, 이는 곧 작가 샬린저가 이 소설을 통해 현대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궁극적 메시지이다.

Bibliography

1. Text:

Salinger, J. D. *The Catcher in the Rye*. Ed. Sang-yong Park, Seoul: Shinasa, 2001.

2. References:

Burns, Robert. "Coming Through the Rye." In *The Poetical Works of Robert Burns*. Ed. J. Logie Robert. London: Oxford UP, 1923.

Corbett, Edward P. J. "Raise High the Barriers, Censors." *America* IV (January 1961).

French, Warren. *J. D. Salinger*. Boston: Twayne Publishers, 1971.

Grumwald, Henry Anatole. Ed. *Salinger: A Critical and Personal Portrait*. New York: Giant Cardinal Edition, 1962.

Gwynn, Frederik L. and Blotner, Joseph L. *The Fiction of J. D. Salinger*. Pittsburgh: U of Pittsburgh P, 1958.

Jacobs, Robert G. "J. D.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Holden Caulfield's Goddam Autobiography." *Iowa English Yearbook* (Fall 1959).

Leitch, David, "The Salinger Myth." *Twentieth Century* *IXVIII* (November 1960).

O'Hara, J. D. "*No Catcher in the Rye*." *Modern Fiction Studies* 8 (1963).

Pinsker, Sanford. "And Holden Caulfield Had a Great Fall." In *The Catcher*

- in the Rye: Innocence under Pressure*.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93.
- Reisman, David. *The Lonely Crowd*. New Haven: Yale UP, 1969.
- Seng, Peter J. "The Fallen Idol: The Immature World of Holden Caulfield." *College English* XXII (1961).
- Shaw, Peter. "Love and Death in *The Catcher in the Rye*." In *New Essays on The Catcher in the Rye*. Ed. Jack Salzman. New York: Cambridge UP, 1991.
- Strauch, Carl F. "Kings in the Back Row: Meaning through Structure—A Reading of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Wisconsin Studies in Contemporary Literature* 2/1 (1961).
- Wakefield, Dan. "Salinger and the Search for Love" In *Studies in J. D. Salinger: New World Writing* 14.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58.
- Way, Brian. "A Tight Three-Movement Structure." In *Studies of in J.D.Salinger: Review, Essays, and Critiques of the Catcher in the Rye and Other Fiction*. Ed. Mavin Laser and Norman Fruman. New York: The Odyssey Press, 1963.
- Well, Arvin R. "Huck Finn and Holden Caulfield: The Situation of the Hero." *Ohio University Review* II (1960).
- Yardley, Jonathan. "J. D. Salinger's Holden Caulfield, Aging Gracelessly." *Washington Post* (October 19, 2004).
- 구자경 외. 『청소년 문제론』.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1998.
- 박상용. 『오늘의 미국문학』. 서울: 한국영어영문학회, 1983.
- _____. "J. D. Salinger의 *The Catcher in the Rye*." 『영어영문학연구』 제

20집 (1981).

이 옥. 「Thoreau와 Salinger의 문학에 반영된 동양사상」. 『충남대학교 논문
집』 제4권 (1983).

한상철 외.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1997.



<Abstract>

Holden Caulfield's Emotional Wanderings and Acceptance of Reality
in *The Catcher in the Rye*

Hyun-ju Ko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J. D.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shows that materialism, corruption of society, human alienation and lots of problems of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through the journey of life of the protagonist of the novel, Holden. He is a sixteen-year-old boy who is very keen to the every aspect of his life. Through his three-day-journey in New York, Holden finds out the meaning of true love and the way to accept the society which he has hat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causes of Holden's loneliness by examining the society's phonies and falseness and his adolescent internal disorders as well as the process of overcoming his loneliness and chaos.

Holden feels devastated and tries to flee from the phonies because he thinks people and the society are so corruptive that he can't mingle with them. Holden doesn't get any comfort from his parents, friends, teachers and the people that he meets in New York even though he keeps trying to find someone who can save him from his loneliness. He wants to stay pure and innocent and refuses to become an adult. Moreover, he decides to live a life as a 'catcher' who protects children running in the field not to fall off of the cliff. However, this is not a realistic dream and he finally realizes that nobody can sav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ro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

another in the world. He understands it is natural and right to move on to the adult world, that is, the experience world and there is not such a perfectly innocent place anywhere.

In conclusion, Holden abandons the hope to be a catcher and gets back on the right track. This results mainly from his younger sister, Phoebe. He is strongly impressed and influenced by her true love and help for him. In other words, her innocence and true love affect Holden to go back home from New York and he at last learns how to embrace the imperfection of his reality. Holden's journey of life is helpful in understanding children's mentality and ways to approach to the maturity. It may be said that Holden's situation and initiation are still effective even in our times and society.

